

**전도주일
설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35~39>



박 정 근 목사 (코오리아야마전도소)

제자들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오직 존경과 경외 그리고 순종만이 있었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반발이나 불경없이 오직 순종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 항해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방향 감각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실수투성이었던 제자들에게 참 길로의 처방을 하신 주님께서 내게도 지금 같은 처방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1.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본문 바로 앞 절(23-27)에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귀신을 쫓아 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어찌이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온 마을에 이 소문이 퍼졌고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이 각종 환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2.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주께서 전 날의 흥분했던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적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은 주께서 이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적을 보고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피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치유함을 받은 자들로 부터의 칭찬을 피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애써 감사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치유함을 받은 자들과의 소통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과만 소통 하셨습니다.

3.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치유함을 받은 자들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의 위상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칭찬과 존경 그리고 명예를 제자들도 당연히 덩달아서 받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37절 하반절에 ‘찾나이다’ 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혈안이 되어서 찾는다’ 라고 할 정도로 필사적으로 찾고있는 모습을 뜻하고 있는데, 이는 얼마나 제자들과 사람들이 주님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2 하반절에는 ‘자기들을

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여기에만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는 욕심이 보여지고 있고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속셈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착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찬 물을 끼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크게 기대하고 주님을 찾아갔는데 말입니다. 저 아래 마을에서는 찬차가 벌어질텐데, 저 아래 사람들은 수 많은 칭찬의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잔치 자리 보다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에 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 답은 주님의 말씀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에 말입니다.

5.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시다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 욕심으로 예수님이 못 가시게 막기까지 했던 그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뒷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무조건 주님의 갈릴리 전도의 시작말씀 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던 제자들을 확실한 목적과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두 말 없이 순종하고 따른 제자들의 모습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정확한 처방전

주님의 처방으로 번잡한 모든 것들로부터 말끔히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잃었던 방향을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목적이 흐릿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럴때 마다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다.

韓日対照讚頌歌販売



韓國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会では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

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서부지방회

한일 교류 신도대회 개최 석상헌금을우크라이나지원을 위해 드려

1월 9일 성년의 날에 재일대한기독교회 서부지방회·일본기독교단 효고교구 공동개최에 의한 제37회 한일교류 신도대회가 재일대한기독교회 고베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이 1984년에 맺은 선교협약에 따라 서부지방회와 교단 효고교구는 1985년 이래 '주님은 하나, 신앙은 하나'의 주제 아래 함께 모여 교류해 왔다. 당일 서부지방회에서 4개 교회 29명, 교단 효고 교구에서 17개 교회 47명, 총 76명의 참가자가 있었다. 개회예배는 양창희(무고가와교회) 대회 실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주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다'(에베소서 4장 16절)는 제목의 한세일 목사(고베교회)의 설교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석상헌금은 일본 기아대책기구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드렸다. 예배 후 이와타 토모코 자매(교단 고토교회) 피아노 연주, 이후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나카에 요이치 목사로부터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속한 일본인으로서」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전영복 목사의 이야기와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역사를 관심있게 들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3년 만에 개최되면서 한일 신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강연을 듣는다는 의의를 각자 재확인한 집회였다. 앞으로도 끊임 없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보고 : 양창희장로)



お詫びと訂正

022年11月号 船橋教会将立式の記事中、写真に「丸徳和博長老」とありましたが「徳丸和博長老」に訂正いたします。

2023年総会手帳の船橋教会「長老 丸徳和博」を「長老 徳丸和博」に訂正いたします。

2023年1月号 新潟教会献堂式の記事中、「東京中央教会 崔興福(최흥복)執事」を「東京中央教会 崔享福(최형복)執事」に訂正いたします。

関係者の皆さまには大変ご迷惑をお掛けして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お詫びいたします。

복음신문 3월호 휴간의 알림

사정에 따라 복음신문 2023년 3월호를 휴간합니다.

讚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 発行されました。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読文・十戒 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 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관서지방회

2023년 신년사경회 개최 오영석목사(한신대제3대총장)강사로

관서지방회 전도부가 주최로 한 2023년 신년사경회가 “주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1월 8일(제2주일)과 9일(월)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한신대학교 제3대 총장 오영석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들었다.

첫째 날은 8일 오후 3시부터 오사카북부교회에서 열렸고(40명 참여), “마음을 쏟은 기도” (사무엘상1:10~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다.

둘째 날은 9일 오후 6시부터 교토남부교회에서 열렸고(32명 참여), “믿음의 결단과 섭리” (룻기1:12~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동시에 오사카북부교회와 교토남부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배신을 하게 되었다.

또한 9일 오후 3시부터 “비범한 제자의 삶” (마태복음5:1~16)이라는 주제로 교역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전도부서기 김유양전도사)



양상진(楊尚眞) 목사 소천 경도남부교회서 목회,弘前학원대서 교수



青森県 히로사키 (弘前) 학원대학 교수(종교주임)로 제직하던 양상진목사가 지병(심장병)으로 지난 2023년1월6일에 소천하여 오사카교회에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향년60세.

故·양상진목사는 1962년 故·양형춘 목사의 장남으로 한국에서 출생하여 10살 때에 일본으로 왔으며, 1992년 관동지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동경교회 부목사, 경도남부교회 담임목사로 섬겼다.

<2022년聖誕節獻金>(많은 지원을 감사합니다)

三沢	30,000	大阪	282,000
つくば東京	23,000	大阪築港	5,000
西新井	10,000	大阪西成	20,000
品川	5,000	豊中第一復興	10,000
東京東部	10,000	堺	52,000
東京中央	40,000	武庫川	31,500
愛の伝道所	20,000	姫路薬水	10,000
横浜	46,000	明石	20,000
横須賀	18,000	新居浜グレース	78,000
長野	20,000	広島	30,000
千曲ビジョン	25,500	宇部	10,000
豊田めぐみ	50,000	小倉	10,000
名古屋	187,000	折尾	25,000
大垣	10,000	沖縄	10,000
京都	50,000		
京都南部	10,000	合計	1,178,000円
大阪北部	30,000		

2023년/제37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집회 선언

우리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 (외기협)은 2023년1월26~27일에 제37회 전국 협의회를 제일대 한기독교회 가와사키(川崎)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혐오 범죄(hate crime)에 대하여 21세기 이민 사회의 선교과제를 생각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지역 외기련 및 외기협 가맹 각 교단, 단체, 한국NCC 대표 등, 52명이 참가하여 관동 대지진의 역사를 직시하고, 화해와 평화를 목표로 하는 日本・韓國・在日교회의 공동 과제를 확인하고, <외국인 주민 기본법> <인종 차별 철폐 기본법>의 제정과 포괄적인 인권법 제도의 실현을 향한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전국 협의회에서는 제일 외국인에 대한 차별 현상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지역에 뿌리내린 공생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대처에 대해서, 일본땅으로 피해 온 난민・이민자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설립 5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행보를 밝고자 하는 마이너리티 선교 센터의 활동에 대한 것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서 나타난 오늘날 교회의 선교 과제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2023년, 관동 대지진으로부터 100년의 고비를 맞이합니다. 100년 전 조선인을 적대시하는 관헌의 주도하에 민중의 차별심을 선동하여 자경단이 조직되고 관민이 일체화한 조선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관헌은 그 사실을 은폐 또 책임 전가를 하고, 그것이 역사 부정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제 헤이트(Hate)가 일반적으로 침투하여 확대되고, 은폐와 책임 전가에 의해 눈가림이 되어 부정된 구조는 100년 후의 지금도 계속되어, 혐오 언동(hate speech)・혐오 범죄(hate crime)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의 역사는 그것이 확실로 이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11월에는 국제인권(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에 보내온 총괄 조건에서는, 정부의 독립된 국내 인권 구제 기관의 설치 및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되어 국제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창설이 긴급한 과제임이 국제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차별은 위법이다’ 라는 법 정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조성하여 소리를 높여 정치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지역 시민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이큐샤(靑丘社, 川崎), 신아이쥬쿠(信愛塾, 横浜)는 1970년대 교회를 기점으로 설립되어 민족차별과 싸워왔지만, 지금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과 일본인이 함께 살며, 살아가는 지역 센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일본은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 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외국인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법제도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에 뿌리를 둔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오랜 세월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정으로 일본으로 온 사람들이 열악한 난민 인정 제도에 의해 수용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사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종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도 日本・韓國・在日교회의 공동작업을 통해 역사를 마주하여 진실과 화해를 향한 대화를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후쿠시마>의 외국인 피해자,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의 공동 프로그램을 계속해 갑니다. 나아가서 세계교회와 또한 다양한 시민 단체와 협력하면서, 난민 신청자・초과 체재자의 생활 지원, 입관법 개혁(改悪)을 저지하며, 혐오 범죄(hate crime)와 싸우고, 지방 자치체에 대해서는 <인종차별 철폐 기본조례>의 제정, 국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주민 기본법> 및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우리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일대한기독교회 가와사키교회에서, 또한 온라인 참가자가 함께하여, <제37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집회>를 개최하고, 현재의 과제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차별과 억압이 극복되고 모든 생명이 사랑받고 존중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 가고 계시는 희망과 함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자유와 해방을 향한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의합니다.

2023년 1월27일

제37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



<公告> 2023年 総会奨学生 募集案内

総会神学生として各地方会にて認定され、1年を経過した者が申請できます。申請書類は総会事務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募集人員: 3 名
- 支給金額: 年額 200,000 円 / 1 人
- 支給期間: 1 年間 (受給者は、継続して新たな申請必要)
- 必要書類: ①奨学金申請書 ②在学証明書 ③成績証明書 ④履歴書 ⑤堂会長推薦書 ⑥総会神学生認定書 (各地方会試取部) ⑦各地方会長承認書
- 締め切り: 2023年4月30日必着 ※書類提出先: 総会事務局

특별연재
1

1923학살의 기억과 십자가 신앙 (1)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이하며—

김성제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1>연극 『구월, 東京의거리에서』 전율의기억

나는 2018년 7월에 도쿄 시모키타자와(下北沢)에서 상연되고 있던 <9월, 東京의 거리에서>를 보았다. 이 연극은, 2014년에 출판된 연극과 같은 표제의 카토나오키(加藤直樹)의 저서를 베이스로 하여 연출된 연극이었다. 저서는 그 부제 「1923년 관동대지진 제노사이드(학살)의 잔향(殘響)」 대로,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발생후 도쿄를 비롯한 관동지방에서 일어난 6천 명이 넘는 제일조선인(그리고 7백명 이상의 중국인)에 대한 학살의 증언집이다.

연극은, 그 책을 손에 넣은 5~6명의 일본인 시민이 책을 단서로, 학살이 일어난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그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야기하고, 때때로 무대는 타임 슬립 하여 그 당시 사람들의 모양을 묘사해 나가는 전개였다.

그다지 크지 않은, 무대를 조금 아래로 내려다보는 계단 모양의 극장의 마지막 줄 좌석에서 관람하고 있던 내 마음에 긴장이 고조에 달한 것은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장면이었다. 심각한 학살의 역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현장 시찰 참가자들에게 갑자기 철조망과 곤봉을 가진 레이스트(인종차별주의자) 집단이 와서 현지 시찰 참가자들을 펜스로 둘러싸고 욕설을 쏟으며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펜스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으며, 레이스트들은 펜스를 곤봉으로 두드리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만 안둘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그 때에 펜스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레이스트 집단에게 외친 한 마디, <나는 일본인입니다. 나를 여기에서 빼내어 주세요!>

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어두운 극장내의 비상구 안내등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연극이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이미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던 나는 그때 자신의 마음을 덮친 공포감에 대해 되돌아보고 있었다. 연극은 굉장한, 아니 제일 코리안에게는 너무 힘들 정도의 연출이었다. 등장한 레이스트들이 둘러싼 울타리는 현지 시찰 그룹 역의 등장 인물뿐만 아니라, 실은 극장 관객석 관중 전원이 한 방에 갇힌 감각이 되도록 연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순간 왜 비상구로 눈이 갔었는가? 한 사람 한사람이 레이스트 집단의 심문을 받아 “너는 일본 사람인가? 조선사람인가? 어느 쪽이냐?” 라고 묻는 것을 반사적으로 상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에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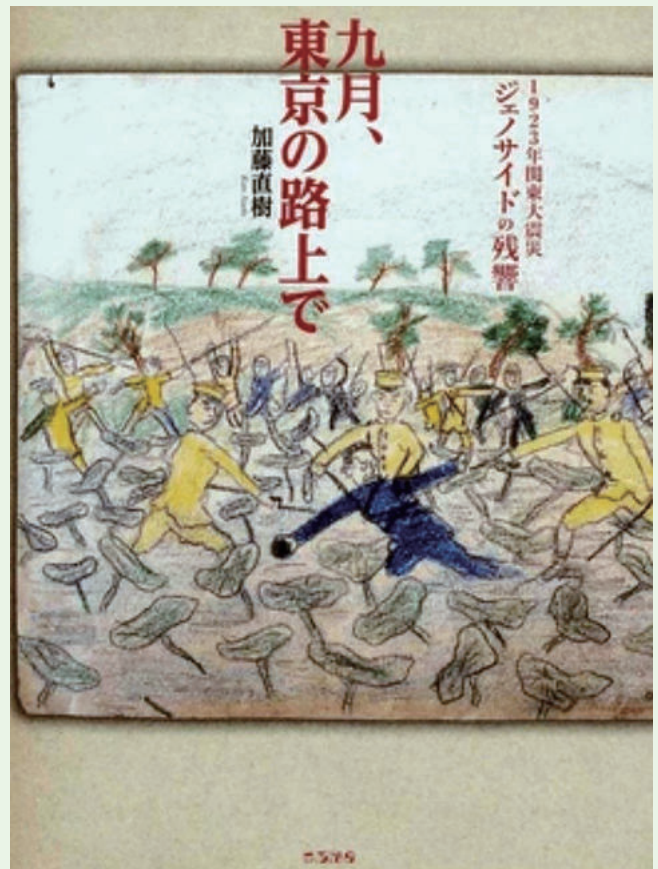
지금까지 강연이나 서적에서 밖에 알지 못했던 1923년 9월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잠든 역사가 있었다는 순간에, 이렇게 자신 속에서 일어나 버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은 연극이 끝난 후 무대 감독이 무대에 등장해 관객에게 소감을 묻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관객 중 일부가 감독과 말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나의 심정은 결코 온화하지 않고, 혹시 분노에 떨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감독을 향해 목소리를 떨며 소리치고 있었을 것이다, “감독님, 당신은 이 관객 속에 제일 조선인도 있다고 가정하면서 그 마지막 장면을 연출했나요? 아니면 전혀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내가 그렇게 물었다면, 감독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자신 속에 숨어있다가 그때 갑자기 극장에서 내 마음 속에 깨어난 것이 무엇이었는가? 역사에는 잊혀진 많은 것, 또 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나 역사에는 잊으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의 심층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분출해 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제일 코리안에게 있어서 1923년 9월의 제노사이드(학살)는 그러한 역사의 하나가 아닌가? 그 일을 확실히 극복하기 위해, 나는 그 제노사이드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마주 보면서, 라고 깊이 생각해 본다.

제일대한기독교회는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在日>이라는 <오이코메네(세계)>(눅2:1의 ‘소영토’) 안의 <땅끝>(행1:8)에 보내셔서 115년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 <땅끝>에서 100년 전에 일어난 제노사이드의 역사를, 각각의 교회는 그 의미에 대해 풍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다시 물어 왔는가? 우리는 매년 9월 첫째 주일의 <인권주일>에 성경 말씀에 서서 이 제노사이드의 역사를 어떻게 마주하며 우리가 보낸 받은 선교의 <땅끝>에서 메시지와 기도를, 오이코메네를 향해 외쳐 왔는가? 제일대한기독교회는 올해 9월 이 제노사이드 100주년을 어떻게 맞이하려 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인 100년 전 여기, 도쿄의 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돌아볼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사진> 加藤直樹 『九月、東京の路上で』 표지